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 7월 14일

오전 11시

*송영	13장(Opening Song)
*신앙고백	사도신경(Apostles' Creed)
경배와 찬양	다같이(Praise & Worship)
합심기도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대표기도	이조앤 사모(Lead Prayer)
교회소식	사회자(Announcements)
수료식/간증	한순진 목사/수료자(Certificate Award)
봉헌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봉헌기도	사회자 (Offertory Prayer)
영어 설교	Sermon in English (Rev. Stephen Lee)
성경봉독	로마서 1장 16-17절 (Rom. 1:16-17)
설교	믿음으로 삽니다. (이봉하 목사)
*송영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축도	이봉하 목사(Benediction)

주일예배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7월(July)	8월(August)
헌 금 위 원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김수홍 집사 백종희 권사
안 내 위 원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대 표 기 도	이번주: 이조앤 사모	다음주: 노은실 집사
이 번 주 친 교	준비: 고경희 권사	기도: 함진옥 안수집사
다 음 주 친 교	준비: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기도: 고경희 권사
이 번 주 헌 화	헌화: 교 회	꽃꽂이: 교 회
다 음 주 헌 화	헌화: 마이클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택에 도착하자마자 누님은 매형님께서도 아침 식사를 아직 하지 못하셨다 하시면서 서둘러 미리 준비해 두신 풍성한 아침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오랜 만에 동기간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누님은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시더니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 수석 장로이신 이 장로님 내외분이 우리 부부랑 절친이신데 이번에 동생 목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일 설교를 부탁드려도 되냐고 물어오셨어. 담임 목사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려 놓으셨나 봐.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어때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에 저는 언뜻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님, 이번엔 쉬러 온 것이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네요....” 말끝이 흐려지는 데 용기를 얻으셨는지 누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모처럼 부탁을 하시는 건데 뭐라 답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님의 얼굴엔 내 답에 못내 서운해 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허는 수 없이 나는 “한 번 기도해보겠어요...” 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두 분은 우리를 예정했던 숙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누님 택에서 가까운 원룸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두 분이 몇 년 전에 매입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6층에 마침 비어 있는 룸이 있으니 그곳을 쓰고 1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딸 아이 보람이 방으로 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씀까지 보태셨습니다. 비록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협소한 감은 있지만 두 방을 다 쓸 수 있다니 우리로서는 너무도 호젓한 숙소를 제공받는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나는 이틀 후 주일에 설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겠어요.” 답을 드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사흘간 노숙자처럼 지낸 식구들이 오랜 만에 샤워를 마치고 나니 한 나절이 다 가버렸습니다. 시장기를 느끼기도 전에 매형님은 처남이 목회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몸보신하라 하시며 우리 가족을 데리고 ‘장어 전문’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낸 후 잡은 이튿날 행선지는 바로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용인 공원 묘지였습니다. 고국에 와서 성묘할 때마다 함께 동행해주시고 교통편의도 제공해주시는 매형님이 참으로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섬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욱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욱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욱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욱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2019년 7월 14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고국 방문을 마치고(2)

이봉하 목사

오랜 만에 보는 고국이 새로웠습니다.

새벽 1시20분에 출발하는 홍콩발 비행기의 인천 도착은 오전 6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익숙해진 내 조국 대한민국의 인천 공항에서 우리 세 사람은 뜻하지 않게 VIP룸이 아닌 특수 조사실로 안내가 아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한숨이 저절로 나는데 내 입은 “할렐루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특수 조사실이라고 해봐야 또 다른 공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것도 남. 녀 직원 합해서 모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세분은 모두 어디서 오셨죠?”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니, 어제 입국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입국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상해서요. 어떻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항공 티켓을 싸게 구입하려다 보니 뜻하지 않게 홍콩을 경유해서 입국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출입국 신고를 두 번 반복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니 그제야 이해가 되었는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후에야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깨워드리기가 미안하여 공항 입국 수속이 오래 걸리니 천천히 나오시라고 했지만 누님 내외분은 예상했던 대로 벌써 나오셔서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원하게 뿜린 공항도로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제법 중천을 향해 힘차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달리던 차는 한강변을 따라 88 올림픽 대로에 진입하고 이윽고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난지도 공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강 건너 공원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토록 염려했던 미세 먼지가 없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결코 초행길 이 아닌 88도로가 낯설게 느껴진 것은 아마도 강변 좌우에 조성된 더욱 우거진 녹음의 울창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수료식 Certificate Award Ceremony

오늘 TEE 성경연구 에베소서 수료증을 받는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수료자: 고경희, 권새미, 김미란, 김정민, 백종희, 신혜숙, 오병국, 한신옥)

3 KTEE 소식 KTEE News

지난 주간(월, 화) KTEE 미주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주 지역 TEE 세미나가 은혜 중 마쳐짐을 감사합니다.

4 강단사역 일정 Pulpit planning

사도행전 강해에 이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해’가 앞으로 계속 됩니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믿음으로 살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은혜로 살기” 시리즈가 이어지겠습니다.

5 이번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 성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6 수양회 Encounter/PK Retreat/Children's Camp

이달 7월27-28일에 빅베어에 소재한 수양관에서 본교회 어린이 가족 여름 캠프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수양관을 마련해주시는 임철현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7 캘린더 Calendar

- 주간새벽기도(화-목, 6:00am)
- 금요찬양기도 모임(금, 7:30pm)
- OC 원로 중창단, 합주단 정기 모임(수요, 10:00am)
- 토요일조찬기도(토, 7am)
- 어린이 가족 캠프(7월26-27일 금-토, 빅베어 수양관)

8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7/14 이조앤 사모 7/21 노은실 집사 7/28 허지영 집사
친교기도 7/14 함진옥 집사 7/21 고경희 권사 7/28 김창웅 집사

9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7/21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7/28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8/4 목장별 맛 대결 8/11 백종희 권사 8/18 신혜숙 권사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봉헌하신 분들

2010년 7월 7일

십 일 조	고광원 고경희 고한성 백종희 김창희 노은실 마네아 히지영 신혜숙 오병국 고 은 이보람 함용선 함진옥 황동필
감사헌금	고한성 백종희 김수홍 김희숙 마이클 데이빗 백복녀 백연희 백선희 이문구 이은숙 이봉하 이조앤 이보람 한신옥 히지영
주일헌금	김정민 권새미 김희숙 남병숙 박경원 박길환 김숙희 용 김 윤재호 이광숙 최진길 한순진 한신옥 황동필 주일학교
선교헌금	고한성 백종희 김수홍 김희숙 윤재호 황동필
기타헌금	비바교회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역대하 29:14)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집회 안내

증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Crumbs for Life

Grace Avoidance

The couple had done a very good deed, selling a piece of property and donating much of the proceeds to the church. They did only one thing wrong in an effort to appear more spiritual, they acted as if they were donating much of the proceeds. In other words, they misrepresented themselves spiritually. The harsh response to Ananias and Sapphira shows how seriously God view hypocrisy.

I know of only two alternatives to hypocrisy: perfection or honesty. Since I have never met a person who loves the Lord our God all her heart, mind, and soul, and loves her neighbor as herself, I do not view perfection as a realistic alternative. Our only option, then is honesty that leads to repentance. As the Bible shows, God's grace can cover any sin, including murder, infidelity, or betrayal. Yet by definition grace must be received, and hypocrisy disguises our need to receive grace. When the masks fall, hypocrisy is exposed as an elaborate ruse to avoid grace.

- Philip Yancy -